

한예중, 강진 청소년 창작 길 열어준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창작자의 길’ 진행

이상우·문소리 등

10명의 멘토 참여

국립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가 청소년대상 지역 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씨앗뿌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3일 한예중과 강진군에 따르면 동계방학을 맞아 오는 9일부터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창작자의 길’을 시작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 모두 10명의 강사가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 부제는 ‘창작자의 길로 나서려는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시리즈 I’이다.

‘창작자의 길’은 한예중 강진아트센터(연출가 이상우 센터장)가 기획했다.

이상우 강진아트센터장은 문성근, 강신일, 이대연, 송강호, 이성민 등 스타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극단 ‘차이무’를 40여년 동안 이끌며 연극 창작작업을 해온 연출가이자 한예중 연극원 연출과 교수로 정년퇴임까지 14년 동안 연극장작 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다.

이번 ‘창작자의 길’ 프로그램은 예술 및 문화산업 영역에서 활동중인 창작자들을

모아 그들의 성장과정, 성공과 실패 과정, 소중한 경험들을 지역 청소년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멘토 강사진으로는 연출가 이상우, 배우 문소리, 배우 이자 사회운동가인 문성근, 국립극단 PD 김옥경, 희곡작가 고재귀, 박춘근, 카피라이터 조성룡, 출판 박준미, 조명디자이너 구근희,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정태선을 비롯한 배우 송강호, 김해수, 이선균의 소속사인 호드&유 엔터테인먼트이자 영화제작자인 이정은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 10명의 멘토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창작자의 길을 선택한 동기’, ‘내가 겪은 좌절과 극복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갖는다.

이상우 센터장은 “강진군에서부터 창작하는 뇌를 장작한 한국의 미래 인력을 길러내는 일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첫 시도가 바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예중 분교인 강진아트센터에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의 하나로 첫 번째 ‘창작자의 길’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가와 함께 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문화예술의 폭을 넓혀 군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에 한예중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한예중 공연전시센터(02-746-9494) 또는 강진군 미래산업과(음악도시팀 061-430-3061)로 문의한 뒤

참가신청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11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992년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최고의 예술 분야 특수대학이다. 음악과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분야에서 예술전문인력 양성, 예술 콘텐츠 보급 등을 담당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전북도-교육청 누리고과정 예산 갈등 법정 가나

道 “179억 상계처리 불가피”...교육청 “명백한 불법” 법적 대응 나서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고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고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던 전북도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 전출금과 이를 상계 처리하면서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법정 전출금 617억원 가운데 179억원을 뺀 438억원만 보내왔다.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했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고과정 운영비를 대신 지급한 만큼 상계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고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내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179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전북교육청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

체가 법정 전출금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 등을 받은 뒤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게 돼 있다.

특히 관련 법상 이 예산은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등에만 쓸 수 있을 뿐 어린이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179억원을 정상적으로 보내주도록 촉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잘못으로 지역내 기관들이 자칫 법적 다툼까지 벌일 수 있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전북도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명백한 불법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움직이는 성교육 ‘탁틴버스’ 고창 찾아갑니다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진남표)는 최근 강화항공고와 고창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체험형 성교육 ‘탁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탁틴 성교육 버스’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전국 농산어촌 및 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을 방문해 진행하는 이동 성교육프로그램이다.

‘탁틴 성교육 버스’는 새로운 공간(성교

육버스)에서 다양한 성교육 콘텐츠와 체험 교육자료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창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전화(1388)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고창 동림저수지 철새 40만 마리로 늘어 AI 방역 비상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가운데 한 곳인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동림저수지에 날아온 철새 때가 40만 마리로 늘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동림저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철새 때가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전남 영암호의 철새 6만 마리가 이동하면서 이곳에 머무는 철새 때는 가장오리 등 17종 40여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창군은 철새때가 늘어나 동림저수지로 통하는 모든 출입로를 막고 군의 협조를 얻어 주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철새가 먹이활동을 위해 흠어지면서 AI가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철

새들의 먹이로 저수지 주변에 벼씨를 뿌려주고 있다.

고창군은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지난 달 중순부터 동림저수지로 통하는 도로 3곳에 초소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낚시나 철새 답방을 모두 금하고 있다.

또 고창군 방제차량은 물론 군과 축협·농협·쌀생산단지의 방제기를 동원해 동림저수지 주변과 저수지 인근 성내·흥덕·신림·부안 등 4개면 지역에서 소독을 시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동림저수지의 철새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저수지 인근에서 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연합뉴스

부안군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명 자동감지 비상벨 설치

범죄 억제 효과 기대

부안군이 전북 지역 최초로 공중화장실에 비명 등을 감지하는 이상음원 감지 비상벨을 설치했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여성 공중화장실 20곳에 비명소리 등 이상음원 감지 사물인터넷(IoT)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음원 감지 IoT 비상벨은 부안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부안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며 지난 1일부터 범죄예방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화장실 안에서 비명이나 폭행, 폭발음 등 각종 이상음원이 감지되면 통신사업자(KT)의 IoT망을 통해 경찰서 상황실

과 CCTV통합관제센터에 경보가 보내지고 상황 관제용 PC에는 이상음원이 발생한 공중화장실 위치가 표시된다.

경찰관은 이 위치가 표시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현장상황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보음과 경광등을 작동시켜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비상벨 설치 등 보안 강화를 통해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부안군, 버스승강장 탄소섬유 발열벤치 29개 설치

부안군은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도 평균온도 30℃를 유지하는 탄소섬유 발열의자 29개를 주요 버스승강장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탄소섬유 발열의자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발열의자는 탄소섬유(직물)로 의자 표면을 제작해 열전도가 높고 전력소모도 적은데다 탄소발열선을 사용한 덕분에 전자파도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또 원적외선의 방출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대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종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1천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아트 현대아파트 옆 매 22억

농 지 / 투 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집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연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695㎡ 남향 위치좋은 5300만원
-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4790㎡ 위치좋은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비다 전망좋은 1억2천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좋은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정동군 인왕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총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3365㎡ 아파트 등 적합 4억5천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점 7255㎡ 다용도 7억4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을 1억천
- 대인동 상업지 580㎡ 오피스텔 사옥 생활주택 적합 13억
-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6600만원
- 광산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장적합 담양군 대덕면 집종지 8451㎡ 남향·도로좋은 7억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건물 신축 적합 5억2천
- 강진군 월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할·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도로여건 좋은 3억6500
- 북구 망월동 마을내 대지 430㎡ 시골생활도 가능 1억3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전중건너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옥, 광고제작 등 적합 3층건물임 매도 2억6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점비임
- 운림동 중상사립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모달 중흥동 대지 184㎡ 건물 66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 택

- 월산동 통고개역에서 4분거리 리모델링된 2층주택 대지 144㎡ 건평 118㎡ 은행6천 주차장있고 생활여건 좋은 임대가능 1억8700
- 월산동 큰소방도로점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 구, 현대극장 바로 옆
- 32평, 코너, 전망최고
- 20층중 9층, 전체 리모델링
- 사무실 전용
- 시세 - 1억 4000만원
- 급매 - 8000만원 (일시불)
- 2017년 1월 10일까지
- 보 500만원에 월55만원 임대가능
- 문의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